

日本列島 소나무망친 신종 솔枯死病 「材線蟲」(소나무AIDS) 韓國에 上陸

防除어렵고 확산빨라·金井山 만덕계곡서 첫發見

「소나무의 AIDS」로 別稱될 만큼 소나무엔 치명적인 해충인 材線蟲이 수년전에 釜山市 東萊區 온천2동 64 金井山 만덕계곡 일대에 침투했으나 지난 10월에야 비로서 무서운 材線蟲임이 판명되어 국내 소나무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자 釜山日報, 동월17일자 慶南新聞을 비롯한 각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釜山市의 신고를 받은 山林廳의 임업연구원 李창근 樹病과장등 연구진이 현지를 답사, 枯死한 소나무 토막을 日本산림청에 의뢰하여 고사원인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것.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나무에 材線蟲이 침입하면 6日内 枯死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한달만에 솔잎이 붉게 타면서 말라죽는다고. 防除가 가능한 솔잎혹파리와는 달리 材線蟲은 나무속심 깊숙이 寄生하기 때문에 藥劑에 의한 방제가 어렵고 소나무의 세포조직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급격히 확산하는 특성이 있어 임업전문가들에 의해「소나무 AIDS」로 불릴만큼 방제대책이 어렵다한다.

枯死木 불태우고 媒介虫을 죽여야

방제는 피해枯死木을 베어 태워버리고 材線蟲의 傳播媒介虫인 「海松수염치레하늘소」를 약제살포로 죽이는 方法외에는 별다른 防除方法이 없어 피해면적이 급속도로 확산될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金井山계곡에서 재선충을 박멸하지 못하여 日本의 경우와 같이 전국에 만연된다면 國內山林 전체樹種의 80%이상인 소나무인 우리나라 山林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 지난 1905년 나가사키縣에서 처음으로 소나무枯死현상이 나타나 72년 그 原因이 재선충에 의한것으로 밝혀 냈으나 防除가 어려워 현재 北海道 일부지역을 제외한 日本全域의 소나무가 멸종위기에 놓인 가공할 피해상황이라한다.

1마리가 20일후 20만마리로

재선충은 번식속도가 빨라 1마리가 20일만에 20만마리로 급속히 번식, 매개충인 공생관계에 있는 「해송수염치레 하늘소」를 통해 순식간에 탄 소나무로 번지기 때문에 수년내에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老松이 많은 전역이 피해권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害虫의 피해가 처음 나타난 것을 釜山日報는 7月이라했고 경남신문사는 인근주민의 말을 인용 4~5년전 부터라 보고 있다. 몇 그루 안되어 시와 산림당국이 방심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金井山만덕터널 일대의 70~100年生 소나무 20여그루가 이유없이 말라죽기 시작한 것이 지난 7월 초순께였다고 B신문은 적고있다.

5개월이 지난 12月現在 500余 그루가 枯死했다하니 무서운 번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上陸經路도 못 밝혀 防疫 無防備상태

害虫의 國內上陸 경로는

- ① 日本來往客들이 갖고 온 소나무분재전염說
- ② 소나무로 만든 포장材
- ③ 수입한 소나무 原木 등을 통한 侵入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경로를 포착한 것은 아니다.

소나무재선충

몸길이가 0.6~1mm에 불과하여 육안 식별이 어렵다 한다. 소나무에만 기생하며 한달이내에 세포조직을 완전파괴시킨다. 自力이동능력이 약해 매개충인 「海松수염치레 하늘소」의 몸에 붙어 이동번식.

해송수염치레 하늘소

成虫 몸길이 2.2~3cm. 1마리당 소나무 材線虫 1만5천마리 이상씩 보유. 보유율 70%. 1회 비행거리 100m 안팎.

遮斷作戰과 防除로 防除可能

▲山林廳山林病虫害防除係 李哲洙 林業技士는 12월 19일 본회 吳判龍사무국장과의 전화 문답을 통해 材線虫이 우리나라에 언젠가 침투할 것으로 경계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 처음 發見되었는데 일단 東萊地域에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言及했다.

『枯死木을 불태우고(註: 수백그루의 노송을 어디서 어떻게 불태울 것인지는 미지수) 지상방제와 내년 6월경 항공 방제를 잘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재선충과 「海松수염치레하늘소」는 공생관계의 매개충인데 이 매개충을 박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염이 길다고 수염치레하늘소라 불리우는데 날개가 딱딱하여 100m 정도 밖에 못 날아가는 점에 유의하여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다』 [珠]

프로필

經濟學者인 新任 朴昇 建設部長官

中央大 政經大學長, 大學院長, 大統領經濟首席歷任



지난 12월 5일 제6공화국 개각에 따라 대통령경제 수석 비서관에서 건설부장관으로 영진한 朴昇장관(52·사진)은 多才多能한 經濟학자(經博)로 金融통화운영위원을 지낸 金融맨이기도 하여 앞으로의 국가 경제시책에 투여될 건설부의

운영방침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36년 2월 16일 全北 金堤군 白山면 興寺里에서 태어난 朴장관은 裡里工高를 거쳐 61년 서울大商大 경제과를 졸업한 후 15년간을 줄곧 한국은행 조사부 조사역 및 차장으로 근무했다. 62년부터 76년까지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사·사우디아라비아 한국경제 고문단장 74년 뉴욕 州立大에 유학, 2년만에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따낸 경의적인 노력파. 76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中央大政經大교수를 지내면서 그동안 동 대학교 정경대학장, 대학원장도 역임했다. 그 밖의 다양했던 경력을 적어보면 서울신문논설위원, 재무부 금융산업 발전, 심의위원, 21회 사법시험위

원, 14회 외무고시위원,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 경제기획원 물가안정위원, 동산업정책심의자문위원, 외자도입심의위원, 통상진흥위원(貿協) 민통협 의회대표후보(통일원) 농진공사이사, 세계발전심의위원, 농업정책심의위원, 6차 5개년계획 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금융통화운영위원(86-88) 등을 들 수 있다.

대학강단을 지켜오면서도 각계와 폭넓은 접촉과 기회 있을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현실참여형의 학자란 평을 받기도 했다는 朴장관의 주요 저서는 한국경제 성장론('69 日新社), 경제발전론('76 博英社), S.S.무즈네츠('82윙출판社) 한국경제정책론('83博英社), 근대경제성장론(역서 '87한국경제신문사)으로 알려진다.

그는 64년 공무원교육공로로 내각사무처장 표창을 필두로 '69년 경제조사활동의 공로로 경제기획원장관 표창, '87년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공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했다. 등산을 즐기는 朴장관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 부인 權英夏여사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있다. [珠]